

광주은행, 9년 연속 '브랜드파워 1위'...지속가능 경쟁력 입증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평가...지역밀착 금융·포용경영 성과 디지털 혁신·글로벌 확장 병행...지방은행 새 성장모델 부상

광주은행이 19일 9년 연속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지방은행 부문 1위를 차지하며 독보적인 브랜드 위상을 입증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K-BPI는 올해로 28년째를 맞은 국내 대표 브랜드 평가제도로, 국내 소비생활과 밀접한 주요 산업(내구재, 서비스, 소비재)을 대상으로 소비자 조사를 실시해 브랜드 인지도와 로열티 등을 지수화한다.

광주은행은 이 조사에서 브랜드 이미지, 이용가능성, 선호도 등 로열티 항목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2018년부터 9년 연속 지방은행 부문 1위의 자리를 지켜왔다.

광주은행은 이번 수상이 단순한 일회성 성과를 넘어, 오랜 기간 축적해온 고객 신뢰와 브랜드 가치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지역 기반 금융을 중심으로 한 차별화된 영업 전략과 고객 밀착형 서비스가 소비자 인식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광주은행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금융지원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약 96억원을 특별 출연해 2566억원 규모의 특례보증대출을 공급하는 등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확대해왔다. 경기 둔화와 고금리 환경 속에서도 지역 기업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 완화에 기여하며 지



광주은행이 19일 9년 연속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지방은행 부문 1위를 차지하며 독보적인 브랜드 위상을 입증했다.

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 마련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대외 평가로도 이어졌다. 광주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실시한 '지역투자자 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등급

을 획득하며,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이 다시 지역의 성장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안정적으로 구축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 금융감독원이 개최한 '2025년도 포용·상생금융 시상식'에서 지방은행 중 유일하

게 자영업자 경영컨설팅 지원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디지털 부문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와 협업해 선보인 공동대출 상품 '함께대출'은 플랫폼 기반의 비대면 경쟁력과 전통 은행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결합한 혁신 모델로, 제도적 한계를 넘어 혁신금융서비스를 선도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2024년 8월 출시 이후 현재까지 누적 공급액 1조4000억원을 돌파했으며, 안정적인 건전성과 전국 단위 고객 유입을 동시에 이끌어내며 지방은행의 새로운 성장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사업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베트남 사업 경험을 기반으로 우즈베키스탄 금융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중앙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으며, 광산구 흑석동에 개점한 외국인금융센터를 통해 국내 외국인 고객 대상 금융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광주은행 경쟁력의 중요한 축이다. 지역 스포츠 구단 후원과 자체 스포츠단(텐텐양궁단, 비츠로배드민턴단) 운영, 장학사업 등은 지역 인재 육성과 공동체 기반 강화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국내 최대 리스크 관리 역량을 결합한 혁신 모델로, 제도적 한계를 넘어 혁신금융서비스를 선도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2024년 8월 출시 이후 현재까지 누적 공급액 1조4000억원을 돌파했으며, 안정적인 건전성과 전국 단위 고객 유입을 동시에 이끌어내며 지방은행의 새로운 성장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일신 광주은행장은 "이번 수상은 지역과 지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이 고객의 신뢰로 이어진 결과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지역과 함께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금융환경 속에서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이어가며, 지방은행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함께 성장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광주시-자치구-대학, RISE 행정협업 확대한다

행정협업회의 열고 '통합돌봄 허브대학' 등 우수사례 공유 신산업분야 인재양성 등 협력사업 제시...신규사업 발굴도

광주시는 1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 광주RISE 행정협업회의'를 열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과 연계한 협력사업 발굴·행정협업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광주RISE 단위과제 관련 부서, 지역 대표산업 육성부서, 자치구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자치구·대학 간 협력 모델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광주RISE사업 추진방향·주요 정책 공유와 함께 각 대학의

RISE 사업 우수사례 발표를 진행했다. 우수사례로는 보건대학교가 추진 중인 '광주 통합돌봄 허브대학 운영'과 조선이공대학교가 추진 중인 '광주로-폴리 RISE 지역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주요 협력사업으로 스소상공인 창업 컨설팅 △신산업분야 인력 양성 △인재 양성 등을 통한 통합돌봄 고도화를 제시했으며, 지자체 정책과 대학 사업들을 긴밀하게 연결하는 협력 체계 구축 필요성을 공유했다. 또 중앙부처 공모사업 연계나 재정 제약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과제에 대해서도 RISE

체계를 활용해 새로운 협력사업으로 재구성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광주RISE 사업은 '지역-대학 협력업(UP), 교육혁신 기회도시 광주'를 비전으로 교육·산업·문화·복지·정주를 포괄하는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공동체 가치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2월부터 5대 프로젝트 대학을 공모해 현재 17개 대학, 66개 과제를 운영 중이다. 인재 스킬업(SKILL UP), 기업 밸류업(VALUE UP), 지역사회 그로우업(GROW UP), 대학 이노업(INNO UP), 범부처·초광역 브릿지업(BRIDGE UP) 등으로 구성된 사업 체계는 교육과 산업, 지역 발

전을 동시에 견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3특'과 연계한 초광역 협력이 강조되면서 RISE 사업의 역할이 한층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 첫 시행되는 사업 평가에 지·산·학 협력체계 구축과 운영 적절성이 주요 지표로 반영되면서, 행정 협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회의의 의의도 커지고 있다.

김영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광주RISE는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혁신 정책"이라며 "행정기관과 대학 간 협력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코스피, 3% 가까이 하락...환율 1500원 돌파

국제유가 급등...코스닥도 내려

코스피가 19일 3% 가까이 하락해 5800선 아래로 떨어졌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63.63p(2.76%) 내린 5761.40으로 출발해 161.81p(2.73%) 내린 5763.22에 정을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이 2조4123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58741억원, 665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사우스 파르스의 가스전을 폭격했다는 소식에 국제유가가 급등했다.

브렌트유의 5월 인도분 선물 증가는 이

날 배럴당 107.38달러로 전장 대비 3.8% 올랐다. 4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스스산 원유(WTI) 선물 증가는 배럴당 96.32달러로 전장 대비 0.1% 상승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25.26p(2.17%) 내린 1139.12로 시작해 20.90p(1.79%) 내린 1143.48에 거래를 끝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이 5013억원을 순매수한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036억원, 2604억원을 순매도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후 3시3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7.9원 오른 1501.0원을 나타냈다. 주간 거래 증가 기준으로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 3월10일(1511.5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임재용 기자 djawayody0316@gwangnam.co.kr

23일부터 주총 '빅 시즌'...1573개사 개최

상장사의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본격 개막한 가운데 오는 23일부터 주총 '빅 시즌'을 맞는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2727개사) 중 이번 달 넷째 주(23일~29일)에 총 1573개사가 정기 주총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기간 주총을 여는 법인은 유가증권 시장 537개사, 코스닥시장 996개사, 코넥

시시장 40개사 등이다.

특히 오는 26일에는 유가증권시장 297개사, 코스닥시장 424개사, 코넥시시장 19개사 등 총 740개사의 주총이 집중돼 있다. 올해 정기 주총 단일 최대 규모다.

한편 SK하이닉스 주총은 오는 25일, 현대차는 26일 예정돼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는 지난 18일 주총을 개최했다.

임재용 기자 djawayody0316@gwangnam.co.kr

신용회복위 순천시부-여수지역자활센터 사회취약계층 경제적 지원 업무협약

신용회복위원회 순천시부는 최근 전남 여수지역자활센터와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과중한 채무와 실업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취약계층에게 금융지원(채무조정)과 고용지원(자활근로)을 통합적으로 제공해 실질적인 경제적 재기를 돕는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자활근로 참여자 가운데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게 맞춤형 채무조정 상담과 신용교육을 제공하고, 금융 취약계층에게는 자활센터의 일자리 사업과 직업훈련 정보를 연계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고용·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소외계층을 공동으로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양 기관이 보유한 인프를 활용한 협력사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채무조정'과 '일자리 제공'을 결합한 선순환 구조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채무 부담을 덜어낸 대상자가 자활근로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함으로써 다시 금융 위기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협의와 협력사업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임재용 기자 djawayody0316@gwangnam.co.kr

호남데이터청-한국섬진흥원 '섬융합DB' 구축·정책 고도화

호남지방데이터청과 한국섬진흥원은 19일 섬 지역 정책연구 활성화와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한국섬진흥원에서 열린 협약은 저출생·고령화, 기후 위기 등 복합적 난제에 직면한 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각자가 보유한 데이터 인프라를 상호 개방하고, 이를 과학적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유, 구축, 미래 설계 등 세 가지 핵심 분야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호남지방데이터청이 보유한 기업 통계등록부와 주택통계등록부 등 모집단 기본정보와 한국섬진흥원의 전문 데이터를 연계·결합해, 누구나 활용 가능한 '섬융합DB(가칭)'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또 사업제 및 가구 데이터를 다각도로 분석해 섬 지역의 산업 환경과 인구 구조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특화 산업 발굴에도 힘을 모은다.

정구현 호남지방데이터청장은 "섬은 저출생·고령화, 기후 위기 등 우리 사회의 복합적인 상황이 집중된 지역"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뢰도 높은 데이터와 정교한 통계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조성환 한국섬진흥원장은 "섬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통계 기반이 필수적이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 차원의 신뢰성 있는 섬 통계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재용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은 19일 김제상공회의소 초청으로 김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김제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광주국세청, 김제 기업인과 현장소통

김제상의 초청 간담회...애로사항 청취·세정지원 강화 약속

광주지방국세청은 19일 김제상공회의소 초청으로 김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김제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제 행정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윤권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중동 사태 여파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환율 변동성까지 확대되면서 대내외 불확실

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역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영 부담도 커진 만큼, 기업 현실을 세심하게 반영한 국제세의 따뜻한 세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지난해 6월 김제상공회의소 출범 이후 지역 기업인들을 간담회를 통해 처음 만나게 돼 뜻깊다"며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납세 의무를 이행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기된 의견들

은 세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지역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세정지원 제도 및 기업 경영 시 유의사항 △가업승계 지원 제도 등 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주요 세부 정보를 상세히 안내했다. 이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질의응답을 진행했고, 국세청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제도 개선 검토 의지를 밝혔다.

광주지방국세청은 또 김제상공회의소 내에 별도 상담 창구를 마련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과 가업승계 제도 안내 등 맞춤형 세부 상담을 병행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